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52호 【루계 제2626호】

주체109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음력 11월 1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세계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와 글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위원장 모스타파 자말 하이더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한없이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신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는 담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조선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고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던 시기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시였다.

그이의 업적은 세계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네팔조선친선협회 서기장 파닌드라 라즈 빤뜨는 자기의 글에서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은 자주, 사회주의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었다.

령도자에 대한 정을 피줄처럼 간직한 조선인민은 그이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 서기장 치쁘리안 뽀쁘는 이런 글을 썼다.

지난 세기 말엽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조선이 최악의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였다.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좌절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집중되고 파국적인 자연재해가 련이어 이 나라에 들이닥쳤다.

적대세력들은 조선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끊임없는 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주력군으로 위용떨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였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수호되였다.

단지 수호되기만 한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까지 열어놓았다.

력사는 김정일령도자의 선택이 옳았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12월 17일에 즈음하여 혁명적인민들은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생애는 인민의 행복과 자유, 독립을 위한 투쟁의 귀감이다.

그이의 생애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체 인민들의 삶의 등대이다.

김정일대원수의 고귀한 업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하면서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수호하시고 경제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김정일대원수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각하는 조선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들을 짓부시고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빛내이시였다.

그이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본사기자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령장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군력강화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

주체80(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자위적국방력건설에서 뜻깊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20성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력강화와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거대한 력사적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 나라의 정사를 돌보신 나날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최악의 역경이 조성되였던 나날이였다.

민족대국상후 반공화국적 대세력들은 사면팔방에서 압살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였고 조선은 얼마 안 가서 《붕괴》될것이라고 떠들어대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사의 조국수호정신과 애민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항시적으로 첨예한 정세가 가셔지지 않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준엄했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인민, 겨레의 운명을 수호하시려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초도와 판문점, 철령과 오성산, 지혜산, 1211고지, 대덕산 등 조국방선의 전호가와 고지들, 산발마다에 력력히 새겨졌다.

그이의 분분초초가 전선길에서 흘렀고 그이의 걸음걸음이 방선과 방선, 초소와 초소에로 이어졌다.

그 길에서 《쪽잠》과 《쥐기밥》이라는 말도 생겨났으니 인류력사에 어느 령도자가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걸으며 쪽잠에 든적 있었고 쥐기밥으로 끼니를 에운 례가 있었던가.

나도 인간인것만큼 힘이 들고 잠이 그리울 때가 많다고, 하지만 나는 편안히 휴식할수도 없고 마음놓고 잠을 잘수도 없는 몸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선군천만리길을 가고 또 가시였다.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적대세력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은 걸음마다 파산을 면치 못했고 공화국은 그 어떤 적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탁월한 선군령도로 자위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여 인디아의 사회정치학박사 비슈와나스는 세계적인 명장 김정일령도자는 조선을 무한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시여 제3차 세계대전이나 세계대열핵전쟁을 막고 세계 수십억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신 대성인이시라고 토로했다.

오늘 공화국인민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여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자주권이 지켜지고 밝은 미래도 있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민족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생애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투쟁사의 갈피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공적이 아로새겨져있다.

주체6(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의 극빈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에 참전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잘루목과 홍기하, 대사하치기를 비롯한 많은 격전장들에서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여 사령부의 안전을 백방으로 보장하시였다.

녀사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시고 능숙한 지하정치공작원이시였다.

녀사께서는 처창즈유격구방위전투, 로령전투, 시난차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대소전투들에서 신묘한 사격술과 림기응변의 지략을 발휘하시여 승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또한 장백현 도천리와 신파, 연사지구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와 국내에서 지하정치공작활동을 줄기차게 벌리시여 사령부의 전략전술적의도를 빛나게 관철하신 녀사의 혁혁한 무훈은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나고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직하게 보좌해드리시였다.

녀사께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나 정세가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자리를 뜨겠는가고 하시면서 그처럼 그리워하던 고향에도 가보지 못하시고 일가친척을 찾는것도 미루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 민주조선건설로선을 받드시고 수령님과 함께 전국각지의 공장과 농촌, 어촌, 학교에로 쉼없이 발걸음을 옮기시였으며 때로는 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실 단위들에 먼저 나가시여 그곳 실태를 료해하기도 하시였다.

정녕 언제 한번 편히 지내지 못하시고 수령님을 받드는 사업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신 녀사이시다.

김정숙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쌓으신 가장 특출한 업적은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올리신것이다.

녀사께서는 뜨거운 지성과 로고를 다하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민족의 향도성으로 받들어올리시였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민족자주위업을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인것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불태우신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류 현 철

조 국 소 식

평 양 민 족 악 기 공 장 조 업

평양민족악기공장이 새로 일떠서 조업하였다.

국산화된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고 수십종의 민족현악기와 목관악기, 민족타악기를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민족악기생산기지가 일떠섬으로써 우리의 민족악기를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8월 3일 민족악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멋있게 건설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정히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응위전에 떨쳐나선 대외건설국 건설자들과 공장로동계급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설계와 시공의 요구대로 기본생산건물과 사무청사, 문화후생시설 등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민족악기생산공정의 특성에 부합되는 설비제작과 조립에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악기부분품을 정밀가공할 수 있는 목재종합기계실과 철재, 공무가공실 등에는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CNC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현악기생산공정, 목관악기생산공정, 타악기생산공정이 확립되여 옥류금, 어은금, 가야금, 장새납, 저대, 북, 장고를 비롯한 각종 민족악기를 제작할수 있으며 검사공정과 포장공정도 꾸려져있다.

본사기자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려는 총련의 투쟁

올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단결된 힘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뿌리이고 생명선인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과감히 전개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일본당국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민족교육을 고수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도쿄도본부에서는 《전임일군들부터 운동의 앞장에 서자!》라는 구호밑에 1월부터 지부를 동부, 도쿄 제1학구, 도쿄 제3학구, 서남지역으로 나누어 조선학교 유치반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벌렸다.

조청 효고현본부도 일본의 산노미야, 히메지, 아마가사끼에서 거리선전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 학생들과 교원들, 조청원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도 인쇄물배포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하여 일본당국의 부당한 민족교육말살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2월 21일 총련중앙일군들과 재일조선학생들, 교직원들, 중앙단체, 사업체 일군들, 동포학부모들, 일본의 여러 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된 금요행동은 민족교육을 기어이 지키기 위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일본당국은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라!》,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에서의 조선유치원배제를 반대한다!》, 《문부과학성은 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당장 보장하라!》, 《조선유치원에 대한 민족차별 절대반대!》 등 참가자들이 터친 웨침은 일본반동들을 전률케 하였다.

일본 혹가이도의 조청원들과 조선초중고급학교 어머니회 성원들, 도쿄, 교또, 오사까, 히로시마, 아이찌, 효고, 야마구찌의 재일동포들은 10월 3일과 30일 기자회견, 집회를 가지고 후꾸오까고등재판소판결의 부당성을 폭로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의지를 피력하였다. 후꾸오까 조선학원은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민족교육말살책동을 규탄하는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학교 유치반들의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위한 100만명서명운동도 보다 광범히 전개하였다.

100만명서명운동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는 지역별, 조직별 집회들과 긴급행동, 거리선전활동, 시위행진 등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불굴의 신념과 애국충정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 계기로 되였다.

7월부터는 《COVID-19》전파로 집체행동을 할수 없는 조건에 맞게 즉시 인터네트를 통한 서명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총련일군들과 학부모들, 재일동포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5월말까지 46만 6 87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전세계를 휩쓸며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대류행전염병전파사태속에서도 민족차별책동에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웠다.

총련 사이다마현본부, 지부일군들,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반 원장과 교직원들, 학교교육회 리사들과 보호자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회장과 사무국장, 변호사들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시안의 보육원, 유치원 등에 《COVID-19》감염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의 유치반만을 배제한 일본 사이다마시당국의 치졸한 망동을 단죄하였다.

《COVID-19》와 관련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을 또다시 제외시킨 일본당국에 항의하여 6월 19일과 25일, 26일 도쿄와 니시도쿄, 사이다마지역 조선학교 유치반관계자들과 보호자들, 총련일군들은 일본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에 조선학교 유치반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서명문과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민족교육권리를 지키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전조직적, 전동포적인 줄기찬 투쟁에 일본 각계도 합세해나섰다.

오사까부에서는 4만 240명, 효고현에서는 3만 7 178명, 혹가이도와 미야기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4만 6 935명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여 서명하였다.

도쿄와 니시도쿄, 사이다마지역의 일본인사들,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제도적보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사이다마》, 《일조우호녀성 네트워크》, 가나가와현 가와사끼시당국은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하는 요망서, 요청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올해 일본전역을 휩쓸며 광범히 전개된 민족교육권리사수를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의해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차별책동의 반동적본질이 날날이 폭로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빛나는 련정(3)

자립경제의 발전을 추동한 탁월한 령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수년간 공화국에서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제강국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라고 하시면서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커다란 전진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려명거리, 삼지연시,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군민발전소,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순천린비료공장, 묘향산의료기구공장, 고산과일가공공장 등 많은 창조물들과 생산단위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현대화되였다.

새형의 80hp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 무궤도전차를 개발하였고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철길현대화와 륜전기계공업의 현대화실현에서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보이라들에 산소-무연미분탄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도입하고 농업부문에서 염기견딜성이 강한 새 품종의 논벼를 비롯하여 다수확우량품종의 논벼와 밭벼를 새로 육종하였으며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탐구전, 창조전의 불길속에 2회전나무모생산을 위한 설비들을 설계제작하는 등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큰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또한 커다란 자연재해를 입었던 지역들에 희한한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솟아나 자립경제의 위력이 과시되고 당 제8차대회를 향한 80일전투로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 세차게 울리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이 거둔 이런 놀라운 성과들은 어떻게 이루어진것인가.

최근년간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은 참으로 극악하고 집요하였다. 더우기 올해에는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이닥치고 악성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한 방역대전까지 치르고있다.

바로 이런 엄혹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이 자립경제의 공고성과 발전잠재력을 나날이 증대시켜올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필승의 신념과 의지,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단호히 맞받아나가시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자존은 목숨보다 귀중하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풍이야말로 공화국이 가장 빨리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이고 제일 값비싼 재부, 자원이라는것이 그이께서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억년바위마냥 새겨주신 철리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기본의제로 제기하고 자력갱생을 당의 정치로선으로 재규정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것,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사상과 정신을 인민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사상리론과 지침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오늘의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여주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창조의 주인공들로 자라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조국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 비상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전인민적인 창조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년초부터 한해가 저무는 년말까지 공장과 기업소, 건설현장들을 찾고찾으시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묘술도 가르쳐주시며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였다.

주체105(2016)년 12월 어느날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며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고, 대자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하시면서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슴배여있는 발전소라고 하시였다.

이렇듯 자력갱생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처럼 엄혹한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나 동요를 모르고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올수 있은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문제를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106(2017)년 9월 어느날 과일군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과일군의 경험은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을 높이 발휘한다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승전고를 높이 울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신 믿음어린 말씀, 사회적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원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신 간곡한 당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로가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안겨주신 뜨거운 은정은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어디서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놀라운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자력자강의 힘으로 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시고 출중한 실력과 해박한 식견으로 주체과학기술의 방향과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애민헌신이 있어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밝은 래일을 향하여 오직 앞으로, 질풍같이 내달려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속에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더 큰 승리와 번영이 기약되여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천출위인을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다가오는 12월 30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9돐이 되는 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인민군대의 강군화는 더욱 다그쳐지고 나라의 군력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지난 10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공화국의 군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이 당창건 75돐이 되는 심야에 진행한 열병식은 사람들에게 세계일류급의 군대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출현한 최첨단무기체계들은 누구도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한다는것을 시위하였다.

-힘이 약하면 대국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금 누구나 바라면서도 오를수 없는 군사강국의 지위에 바로 조선이 우뚝 올라섰다.

…

우리 민족이 세세년년 바라던 부국강병의 꿈이 현실로 펼쳐져 나라의 존엄과 위상이 하늘에 닿은 이 놀라운 전변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국방선초소들을 찾고찾으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고 실동훈련과 포사격경기들을 지도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다그치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훈련들과 포사격대항경기들, 비행훈련 등을 지도하시면서 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국방공업을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진두에서 국방과학연구기관들과 위험천만한 시험장들을 찾고찾으시며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하는 력사적대업을 최단기간내에 실현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난 3월 전술유도탄의 시범사격을 참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우리 식 무기체계들의 련속적인 출현은 우리 국가무력의 발전과 변화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며 이러한 성과는 당의 정확한 자립적국방공업발전로선과 국방과학중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고 우리의 국방과학, 국방공업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조국수호뿐아니라 부강조국건설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실 때마다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시였으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데서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인민군장병들은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황금벌의 력사를 앞장에서 써나가는것도 인민군대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올해 련이은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지역들에서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으로 기적을 창조해왔다.

진정 몸과 마음, 피와 땀을 다 바쳐 나라에 덕을 주고 인민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군대인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의 경축광장 연단에서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우리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다고, 너무도 많은것을 맡아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이 영광의 이 밤에 함께 있지 못하는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의 로력적위훈을 깊이 헤아려주신것이였다.

이런 참다운 군대이기에 인민들의 진정어린 사랑과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아낌없는 원호속에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공화국무력은 앞으로도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억세게 수호해나갈것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더욱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인민이 드리는 인사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마중해가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것이 있다.

《지금도 10월의 경축광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이 귀가에 쟁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없이는 이 말을 불러볼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무서운 병마로 불안과 공포에 허덕이고있는 오늘 이 세상 제일 힘겨운 로고란 로고는 다 바치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후대들의 행복을 굳건히 지켜주신 고마우신 우리 원수님이 아니십니까. 인민이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 원수님이신데 오히려 원수님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였으니 그 송구함과 죄송함에 지금도 가슴이 저려듭니다.》

이것을 어찌 잊을수 없는 10월의 그 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평양시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의 마음이라고만 하랴.

태풍이 모든것을 쓸어갔던 자기 고장에 몸소 찾아오시여 세찬 바다바람을 맞으시며 친어버이의 정을 기울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슴배여있는 바다가의 돌 하나를 소중히 품에 안고 노래 《불타는 소원》을 눈물속에 불렀다는 홍원땅의 한 녀인만이 아닌 이 나라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돌이켜보면 시련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한해였다.

하지만 그 나날 인민들모두가 더 많이, 더욱 절절히 새겨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였다.

온 한해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병마로부터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신 회의들만 해도 그 얼마이고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은 인민들을 찾아 그이 걸으신 멀고 험한 길은 또 얼마였던가.

그 길에는 길 아닌 감탕길, 논두렁길도 있었고 태풍의 흔적이 채 가셔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길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그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늘 큰물과 태풍이 모든것을 휩쓸고 지나갔던 곳에서 울려나오는 인민의 행복한 웃음은 인민을 위하여 겪으시는 고생까지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며 사랑과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정녕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아도 공화국인민들처럼 자신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그처럼 복받은 인민은 없다.

하기에 저무는 이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땅의 남녀로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일편단심 그이만을 굳게 믿고 따를 충정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선물백송

백송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73(1984)년 3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정부에서 올린 선물식물이다.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력사적인 중국방문의 나날 베이징시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인공산인 경상공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키높이 자란 나무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다가 껍질이 매끈하고 흰색이 많이 나는 백송을 가리키시며 이 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하시였다.

베이징시정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신 경상공원의 이 백송을 더없이 귀중한 사적물로 잘 가꾸도록 하였으며 이 뜻깊은 사연을 기념하는 뜻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백송을 선물로 올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장을 책임자로 하는 선물준비위원회가 조직되게 되였다.

시장은 선물준비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베이징교외에 있는 양묘장에 직접 나가 수세가 제일 좋은 백송나무모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나라 식수절인 다음해 봄까지 특별히 잘 가꾸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시장을 비롯한 선물준비위원회성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양묘장에 나가 백송이 잘 자라는가를 알아보군 하였으며 양묘장일군들은 뜻깊은 사연이 깃든 백송나무모를 유능한 전문가들에게 맡겨 잘 키우도록 하였다.

베이징시정부에서는 후날 이 백송나무를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로 드리였다.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에서 중국의 책임일군은 《우리는 조선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베이징시인민혁명정부에서 올리는 백송을 전해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던 1983년 6월의 격동적인 나날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 위대한 사적을 영원히 대를 두고 전해갈것입니다. 백송은 1 000여년동안 오래 사는 진귀한 나무입니다. 경상공원의 백송과 중앙식물원의 백송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과 불멸의 업적 그리고 조중친선을 구가하며 영원히 푸르싱싱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기적과 승리의 2020년

올해에 사상초유의 재해속에서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시련을 맞받아 뚫고 자랑찬 기적과 승리를 떨치였다.

◇ 온 나라 도처에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무수히 일떠섰다.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로부터 은파군 대청리, 금천군 강북리, 신포시, 단천시, 김책시, 김화군, 철원군을 비롯한 도처에 희한한 선경마을들이 일떠서 새집들이로 흥성이였다.

평양향료공장, 고산과일가공공장, 원산김치공장, 남포샘물공장, 태천자라공장, 평안남도산소공장, 희천입원침대공장 등이 새로 건설되고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등이 멋들어지게 꾸려졌다.

◇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전력, 석탄, 화학, 금속공업부문 등 여러 부문들에서 국산화를 발전전략으로 틀어쥐고 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을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천리마타일공장, 대동강건재공장, 청진스레트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건재생산기지들과 경공업부문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 과학과 교육발전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각지의 과학기술위원회들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였다.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밀착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 공화국이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은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이 얼마나 무진막강한가를 세계앞에 남김없이 과시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본사기자 홍 범 식

《미군이 오염시킨 땅, 왜 우리 세금으로 치유해야 하나?》

얼마전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인터네트에 《미군이 오염시킨 땅, 왜 우리 세금으로 치유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국방예산에는 반환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사업비 568억원이 들어있다. 래년도예산에 편성된 정화사업대상 미군기지는 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가 주한미군이다. 〈토양오염을 발생시킨자〉 역시 주한미군이다. 당연히 주한미군이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2021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국방부가 정화책임자로 되여있고 우리 세금으로 정화하는것으로 되여있다. 국방부가 200차 및 201차 한미소파(행정협정)합동위원회결정을 근거로 2021년반환 미군기지정화사업비 568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한미소파합동위결정은 폐기되여야 하며 그에 의거하여 편성된 래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예산은 집행되여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반환받은 54곳의 주한미군기지중 정화대상 17곳의 환경정화를 위해 국방부가 부담한 돈은 2 200억원에 달하고 환경부가 부담한 환경조사예산만 340억원이다. 국방부가 부담한 미군기지폐기물처리비용도 17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4곳, 올해 12곳을 반환받았다. 이들 반환기지의 정화도 이제 시작단계다. 또 앞으로 12곳을 더 반환받아야 한다. 앞으로 반환이 본격화될 룡산미군기지는 그 오염면적이 다른 미군기지의 오염면적에 비할바없이 클것으로 본다.

국방부의 앞서 인용한 예산사업설명서에 따르면 5년간 국방중기계획(2021-2025)에서 예상하는 정화비용만 4 538억원에 이른다. 이미 2012년과 2014년에 195억원과 250억원을 들여 각각 정화를 마친 춘천과 의정부의 미군기지들도 최근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기존 정화한 반환미군기지의 추가정화비로 또 얼마가 들지 모른다. 여러 언론들은 반환미군기지 전체 정화비용이 1조 5 000억원을 웃돌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이 비용을 몽땅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계속하여 《오마이뉴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한 권리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제한한다면 미군에 의한 생활터전의 오염은 계속 이어질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이 떠안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은 미국의 오염치유책임을 당당히 물어야 하며 국민은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 혁 철

검찰개혁을 지속할 립장을 표명

남조선에서 현직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한다.

《이데일리》,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의 립장을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론평을 통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언론들은 《검찰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그간 특권과 반칙, 일탈의 문제가 끊기지 않았던 검찰조직의 체질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면서 자신만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지위를 누리며 온갖 르집을 잡아온 윤총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의 수장이자 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향후 거취를 분명히 하고 더이상의 잡음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한 열린우리당 대변인론평을 상세히 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검찰개혁을 지속할것》이라고 하였으며 같은 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론난과 갈등도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면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개혁이 추진되여야 한다.》, 《공수처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립장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하였다.

본사기자

갈수록 커지는 불안과 공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COVID-19》의 급속한 전파가 사회전반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고 한다.

지난 18일 남조선의 《련합뉴스》는 악성전염병 《3차대류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수가 또다시 1 000명을 넘어섰다고 전하였다.

《련합뉴스》는 《이달 들어 〈COVID-19〉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내고있다. 지난 16～17일(1 078명, 1 014명)에 이어 사흘련속 1 000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13일(1 030명) 처음으로 1 000명선을 넘은 뒤 련일 1 000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확진자와 격리대상자의 수가 늘어나고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보건상태가 한심하고 이로 하여 사회적비난이 높아가고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

남조선언론 《머니투데이》는 《병상도, 의료진, 백신(왁찐)도 없다. … 궁지에 몰린 〈COVID-19〉 방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COVID-19〉 일일 신규확진자수는 급증하는데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진은 부족하다. …전국에 입원가능한 〈COVID-19〉 중증환자병상은 43개다.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는 병상이 없다. 병상을 확보해도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는 실정이다. 이미 업무량 과중을 견디지 못해 전공의사들도 병원을 떠나면서 대형병원도 인력, 병상부족에 시달린다. 〈COVID-19〉 사태를 종결시킬 희망인 왁찐확보도 료원하다.》

이와 함께 언론은 《…2%정도밖에 안되는 병상을 정부가 확보해 〈COVID-19〉 환자를 진료하고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너무 자만했다. 〈COVID-19〉가 재발해도 병원이 알아서 감당할 수 있겠다는 락관에 거리두기격상, 병상확보 등도 한박자씩 늦추었다. …왁찐을 확보하고 그전까지 거리두기를 통해 버틴다는 기본적인 전략도 없는것 같다.》는 각계의 비난과 우려도 보도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련합뉴스》, 《뉴시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당국의 《안일한 대응》, 《방역실패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맞서는 여당 등 현 사태를 두고 서로 으르렁대는 여야사이의 대립판계에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전 명 진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개정안이 통과된것과 관련하여 정국혼란이 가중되고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세력내에서는 찬성과 환영의 목소리들이 나오고있는 반면에 《국민의힘》내에서는 《히틀러》 등의 온갖 막말이 터져나오면서 남조선정계가 벅적 끓고있다고 한다.

인터네트신문 《이데일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했다면서 한 의원은 《국민앞에 낮은 권력, 검찰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인터네트언론인 《뉴스1》은 《국민의힘》이 15일 대변인론평에서 현 집권자가 《협치의 대상》이라던 야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탄으로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중립을 언급하는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개정안통과를 놓고 보수세력들속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이 높아가고있는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신문 《서울경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커가고있다고 전하였다.

신문은 특히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종인체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있다. 한 재선의원은 김종인이 상임위원장자리를 모두 여당에 주고 단 한개의 위원장자리도 받지 않았을 당시 결국 당에 약이 될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의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무기력한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확인했듯이 결국 〈약〉이 아니라 〈독〉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문 《문화일보》도 《〈국민의힘〉은 전략도 야성도 없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끌까지 막겠다던 〈국민의힘〉은 법처리를 목전에 둔 10일까지도 뚜렷한 저지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드러냈으며 당내부에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마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평가다.》라고 평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 역시 11일 《우왕좌왕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론난의 소용돌이속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출렁이고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갈림길에 서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언론들과 정치평론가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사이의 싸움이 더욱 치렬해질것으로 분석하고있다고 한다.

배 영 일

내부갈등이 격화되고있다고 남조선언론이 보도

얼마전 남조선의 《뉴스1》이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교체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내부갈등이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은 그동안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인적쇄신》의 갈림길에 섰다고 하면서 이 당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현직 당협위원장 《물갈이》 카드를 놓고 당내에서 《혁신》이라는 명분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과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의 날을 들이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에만 새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자는 의견과 당무감사위원회 평가결과가 저조한 현직 당협위원장들까지 교체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지난 17일에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원외 당협위원장 138명중 49명의 교체를 단행할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교체권고대상에는 극우보수의원들과 옛 《국민의 당》인사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무리하게 당협위원장 인적쇄신을 시도했다가 내부결속력도, 지역동원력도 잃을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하였다.

또한 내부에서 《이런 문제는 혁신을 위해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번 기회를 이런저런 리유로 넘기면 소위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도 놓치는 뻔한 결과를 얻게 될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비난받는 보수야합체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정당, 사회단체들이 련석회의를 열고 그 무슨 《비상시국련대》라는것을 출범시켰다고 한다.

《비상시국련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 당》 대표, 《국민통합련대》 집행위원장, 《자유련대》 대표 등 8명의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될것이라고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내부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신문 《부산일보》는 《국민의힘》내부에서 《비상시국련대》를 두고 견해가 엇갈렸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선을 그어온 강경보수와도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투쟁할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서 시민단체는 나름대로 그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일축하여 《국민의힘》내부의 균렬이 뚜렷하게 감지되였다고 평하였다.

《련합뉴스》도 《태극기세력》으로 불리우는 한 인물이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시국관은 너무 다르다.》면서 《차라리 정당을 빼고 시민사회단체로만 하자.》고 주장하는 등 일부 보수단체관계자들이 《비상시국련대》에 정당이 참가하는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하였다.

《국민의힘》내부에서는 《비상시국련대》의 일부 인물들이 《태극기로 분류되는 아스팔트보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합하면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역시 《비상시국련대》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가한것을 두고 《문제는 그 자리에 이른바 〈태극기세력〉으로 불리우는 극우세력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치권안팎에서는 그동안 태극기와 거리를 두던 〈국민의힘〉이 다시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공략을 하고있는데 누가 오는지 모르고 갔다고 하면 바보》라고 한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한편 전직당국자들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국민사과》를 두고 《국민의힘》내부의 갈등도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아시아경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사과》는 보충선거를 위해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행보였다, 그러나 과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내부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오히려 《탄핵의 늪》에 빠진 형국이 되였다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홈페지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치매로인》, 《쓰레기》 등 욕설을 포함한 비난이 대다수다, 지난 《총선》 참패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탄핵문제가 당내에서 다시 폭발하는 모습이다, 당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 《개인적정치욕망을 위장한 속임수》,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안 권 일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악명높은 《특별련성제》를 조작하여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쇼통치기간 조선의 인적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을 련속 도발한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해 각종 형태의 범죄적인 악법과 제도들을 조작하였다.

그가운데는 태평양전쟁발발후 수많은 조선청년들에게 《황군》의 총알받이, 《근로정신대》, 일본군성노예 등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특별련성제》도 있다.

《특별련성제》라는것은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방황하던 식민지 조선의 남녀청년들에게 일정한 군사훈련과 《기술교육》을 주어 그들을 징병대상자, 《근로정신대》 및 일본군성노예로 체계적으로 키울 목적밑에 고안해낸 악독한 제도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여가자 보다 많은 조선청년들을 전쟁터에 끌어내여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써먹으려고 꾀하였다.

1942년 10월 1일 정령 제33호로 《조선청년특별련성령》(총 18개 조항)이라는것을 공포한 일제는 그해 10월 26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69호로서 《조선청년특별련성령 시행규칙》(총 27개 조항)이라는것을 조작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2년 11월에 열린 내무부장관회의에서 《조선청년특별련성소》들을 광범히 설치, 운영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모의한데 이어 그해 12월 1일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조선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련성교육》을 전국적규모에서 실시하였다.

조선총독 고이소란자는 《조선청년중 국민교육을 받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정한 련성을 실시하여 이 청년들로 하여금 장래에 건강한 국민, 건전한 병사가 될 자질을 배양시켜야 한다.》, 《조선청년특별련성도 징병제도의 군비공작뿐아니라 로무자를 조직적, 규률적, 정신적, 능률적으로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청년들을 대대적으로 《조선청년특별련성소》에 끌어넣도록 명령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지령에 따라 전국에 널려있는 《국민학교》와 부속건물들에 수많은 《조선청년특별련성소》들이 설치되였고 각 도의 도지사들과 부, 군, 면의 관리들, 경찰들은 《련성》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들고다니면서 집집마다 대상청년들을 색출하고 강제로 끌어갔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2년부터 1943년 4월까지의 기간에 약 2 700개소에 《조선청년특별련성소》가 설치되고 여기에 10만 2 600여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끌려갔다고 한다.

일제는 《조선청년특별련성소》에 끌려온 조선청년들에게 《황민련성교육》으로 일관된 군사교육과 훈련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황민련성교육》은 《훈육》, 《학과》, 《교련 및 로동》으로 구성되여있었는데 《훈육》(품성과 기질, 습관을 좋게 키운다는 뜻)에서는 왜왕과 그 권력에 대한 《존엄》을 체득하고 《황국신민》의 자각을 지니며 《황군》의 사명에 충실하고 명령과 규률에 절대복종하는 기풍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었다.

《학과》에서는 왜왕숭배와 노예적굴종심을 가지며 일본어의 숙달과 《황국신민》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일제는 《교련 및 로동》을 통하여 앞으로 일제침략군에 복무하면서 힘겨운 훈련과 고된 로동을 감당할수 있는 《기질》을 가지도록 하게 하였다.

결과 《조선청년특별련성소》에 끌려간 조선청년들은 일제의 가혹한 《황민련성교육》에 시달리다가 《징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을 강요당하였다.

악명높은 《특별련성제》를 조작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참혹한 희생물로 만든 일제의 죄행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실로 가혹하고 잔인한 범죄였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징병에 강제로 끌려나가는 조선의 청년들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비렬한 책동

일본반동들이 과거청산을 회피하려고 비렬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다음해부터 사용될 중학교력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당 출판사에 권고할것을 주장하는 요청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에 제출하는 추태를 부렸다.

《새 력사교과서》에는 지난 세기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일본이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아 잔인하게 학살하고 20만명의 우리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간 범죄행위 등이 전혀 언급되여있지 않다.

오히려 독도강탈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시아지역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던 《대동아》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자위전쟁》 또는 《해방전쟁》으로 외곡하였다.

일본반동들에 대한 내외의 항의와 규탄이 갈수록 비발치고있는 속에 또다시 력사외곡을 《국민의 요청》에 의한것으로 정당화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간특한 책동은 우리 민족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일제의 피묻은 력사는 절대로 지워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본사기자

아이들의 멋쟁이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 공화국에는 이 땅의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아이들까지도 사랑의 집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떠나기 아쉬워하는 집이 있다.

풍치아름다운 동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이다.

◇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멋쟁이궁전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주체102(2013)년 5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세계일류급의 야영소를 꾸릴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야영각의 침실들에 더 좋은 가구와 텔레비죤을 놓아주며 겨울철에도 야영소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새로 건설되는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도 탈수 있게 해주고 물놀이장과 뽀르장, 운동장과 해수욕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새롭게 갖추어줄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여 아이들의 야영생활을 위해 사랑과 배려를 거듭 베풀어주시였으며 주체103(2014)년 5월 몸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학생소년들을 위해 온 하루를 바치시였다.

◇ 1960년 8월 첫 소년단야영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곳에서는 공화국의 학생소년들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야영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졌으며 이 나날 47만여명이 야영소에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였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시초

한 녀의사의 수기 (6)

김 영 일

감사의 꽃다발을 엮으리

인민사랑이 꽃피는 우리 조국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화폭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리고있거니

그 노래소리속에 들려와라
전쟁의 폭음을 누르며 울려퍼진
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전인민적인 무상치료제의 인간찬가가

영원한 인민사랑
그 시작은 있어도 무한대하여라
인류가 바라던 소원을 이 땅에 펼쳐
그 얼마나 많은 인간사랑의 전설을
꽃피웠던가

노래하노라
그 절대적인 인민사랑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대류행병
그 광란하는 폭풍을 이겨내며
인류의 미래 조선에서
21세기 인간사랑의 노래가 울리고있거니

21세기의 경이적인 현실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온 세상에 선언하였어라
그 어떤 폭풍도 두려움없이
조선은 인민사랑의 길을 간다고

긍지로워라
나는 숭고한 그 사랑을 받드는
인민의 건강을 돌보는 인민보건 제일선
참호의 전투원
내 언제나 그 사랑을 받들어
우리의 예방의학시책을 꽃피워가리

내 한생을 다 바쳐
인민을 위한 위대한 헌신의 길을 이어
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우에
티없이 밝고밝은 인민의 웃음으로
감사의 꽃다발을 삼가 엮으리

우리 공장, 우리 제품

경쾌감, 세련미-새형의 무궤도전차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시내를 달리고있다.

평양의 거리에 잘 어울리면서도 인민의 미감에 맞게 외형이 세련되고 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내부도 문화적이다.

전차의 차창은 시원하게 밖을 내다볼수 있는 강질유리로 된 대형창과 미닫이창으로 되여있다.

차체가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색들로 단장되여있어 보기에도 속도감과 경쾌감이 느껴진다.

전차의 내부에는 리용자들을 위해 액정텔레비죤과 함께 겨울에 추위를 막아줄수 있는 온풍장치들이 설치되여 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하며 평양의 거리를 이채롭게 장식하고있다.

본사기자

유휴자재로 질좋은 종이를

-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

공화국의 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는 제품생산과정에 나오는 유휴자재를 가지고 생산된 종이를 제품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공장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인쇄설비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제작하고 지능생산체계를 완비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개발하였다.

결과 전반적생산공정이 일신되고 경영활동의 최량화, 최적화가 실현되여 생산능력이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높아졌으며 공장은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 기술집약형 기업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이 늘어난데 맞게 자재, 원료를 보장하는 사업은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족되는 자재, 원료의 보장대책을 재자원화에서 찾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종업원들모두가 깐진 살림살이기풍, 일본새를 가지고 교과서생산과정에 나오는 파지와 자투리종이를 비롯한 유휴자재를 빠짐없이 회수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난 시기에도 제품생산과정에 나오는 유휴자재들을 가지고 종이생산을 진행하였지만 그 질이 담보되지 못한것으로 해서 기본생산공정에 리용하지 못하였다.

종이의 질을 개선하자면 그에 맞게 설비들을 개조해야 하였다.

공장종업원들은 이미전에 진행하던 원료공급방법의 부족점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점들을 살려 이 공정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또한 원료에 섞여있는 모래, 잉크,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 종이의 평활도를 보장하며 종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한 종이압착문제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나갔다.

이에 기초하여 다통초지기를 자체로 제작하고 종이를 재생리용하는 사업을 꾸준히 밀고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생산된 종이를 단색인쇄와 천연색인쇄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다그치고있다.

하여 공장에서는 제품생산을 정상화하고있으며 수십종에 달하는 교과서 및 참고서, 여러가지 형태의 학습장 등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제30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제28차 전국인민소비품품평회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공장에서는 재자원화를 단위발전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원료문제를 자체로 풀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새 세기 교육혁명 (2)

예로부터 한해일을 궁냥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심오한 웅지가 담겨져있는 이 구호는 나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나라 령도자의 현명성은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과학적으로 통찰하는 선견지명과 천리혜안의 예지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생산은 오늘, 과학은 래일, 교육은 모레라는 격언이 있듯이 교육발전은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국가의 존망과 장래가 결정되고있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등 교육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어린이 5명당 1명을 수재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걸고 수재교육을 중시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지능과 창발적사고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방법을 고쳐나가는 나라, 교육과 과학, 산업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재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허나 그러한 교육정책이나 시도들은 교육발전의 일부분에 국한될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가진다.

누구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정독하면 공화국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인 교육정책이라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바로 그 로작에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 교육혁명의 기본고리와 중심과업, 그 실현을 위한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명철하게 밝혀져있기때문이다.

그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국가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공화국을 21세기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자는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인민들모두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을 지니고 그들을 공부시켜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조국에서만 내놓을수 있는 통이 큰 목표이며 물질적부를 자랑하는 그 어느 나라들도 감히 엄두를 낼수 없는 사회주의교육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있는 공화국에서만 이 내놓을수 있는 현실성있는 목표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교육혁명수행의 기본고리를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조건과 환경의 근본적인 혁신문제 등 교육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뿐아니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제시하시였다.

한자한자 로작의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나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철저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나라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자기식으로 발전시켜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원칙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교육체계를 완비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만 놓고봐도 잘 알수 있다.

새 세기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틀을 바로세우는 사업이 다름아닌 교육체계를 완비하는것이다. 이것은 교육혁명수행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에서 이미 전반적의무교육기간을 한해 더 늘이고 교종들을 새롭게 정비한데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원만히 실시되여 은을 낼수 있도록 중등일반교육체계를 더욱 개선완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중등일반교육의 교종들과 교육과정을 조국의 실정과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개선해나갈데 대한 문제,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는 문제, 중등일반교육에서 수재교육에 힘을 넣으면서도 일반교육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체계를 보강함으로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강국건설에 실지로 이바지할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고 앞으로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할수 있는 기초를 다지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고등교육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강국건설에 요구되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수 있도록 정비하는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재중동포 김 영 란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땅

예로부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여왔다.

세계에서 제일먼저 금속활자와 측우기를 만들어 리용하였고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무어 나라를 방위하였다. 우리 민족은 기상학과 천문학, 의학과 미술, 건축술과 야금술, 도자기술에서도 명성이 높았다.

뿐만아니라 식생활과 옷차림을 비롯한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전통은 로동당시대에도 빛나게 계승발전되여왔다.

평양의 중심부에 푸른 합각지붕을 떠이고있는 인민대학습당이며 평양대극장과 옥류관, 인민문화궁전, 을밀대와 련광정, 보통문을 비롯한 건축물들과 력사유적들도 그러하지만 수도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도 현대적미감과 민족적특성이 조화를 이루며 조선의 얼굴과 멋이 살아나게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이다.

조선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민족음식의 하나이며 세계 5대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공장들이 평양과 혜산, 원산, 해주 등 각 지방들에 일떠서고 우리 민족의 젓갈문화를 꽃피우는데 이바지하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 건설되여 인민들의 식탁에 민족의 향취 더해주고있다.

공화국인민들속에는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빛내이기 위하여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연구사도 있고 력사유적보존관리에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들도 있으며 민족옷제작과 민족음식발전에 심혈을 바쳐가는 근로자들도 있다.

가정과 사회에 민족음식, 민족옷, 민족체육을 장려하는 기풍이 넘치고 남녀로소 누구나 명절날과 휴식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자기의 선률과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부른다. 서로 돕고 위해주는 마음들에 의해 집집마다 화목이 깃들고 온 나라에 덕과 정이 넘치고있다.

언어생활에서도 조선어의 고유한 민족적특성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세련되고 우수한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쓰고있다.

하기에 최덕신선생은 《민족과 나》라는 책에서, 한 재미녀류기자는 단군릉의 층계에 올라, 로씨야의 한 작가는 인민대학습당의 합각지붕아래서 이렇게 토로하였었다.

조선에 민족의 얼이 살아숨쉰다고.

민족의 얼, 그것은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족본연의 모습, 민족의 고유한 멋과 향기를 보존하고 빛내여가려는 정신이며 의지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민족의 얼은 문화와 전통이 우수하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하여 저절로 지켜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이 우리 민족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한세기전 망국의 수난속에 민족의 귀중한 유산과 전통이 무참히 짓밟히고 지어 자기 이름까지도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이였다.

반만년의 민족사를 지키고 빛내여주시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바치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민족의 향기넘치고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는 이 땅의 모든것은 조선민족모두가 소중히 여기며 대를 이어 빛내여가야 할 재보들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은 이 땅을 사랑하며 소리높이 자랑하는것이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고.

전 창 혁

대성산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옛 모습을 되찾은 광법사

대성산의 장수봉에서 릉선을 타고 국사봉에 이르니 아래골짜기 막바지에 조선식건물들이 내려다보였다.

우아하고 독특한 자태로 주변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이 집들이 옛 모습대로 일떠선 유명한 광법사였다.

사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문옆에 세운 두개의 돌기둥이였다.

리일심연구사는 이 돌기둥들은 기발을 꽂아 사찰임을 표시할 때 쓰는 당간지주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배집지붕에 모루단청을 한 해탈문을 지나 천왕문에 들어서는데 동서남북을 지킨다는 수호신들인 4천왕상이 악귀를 밟고 무시무시한 눈으로 노려보고있었다.

그곳을 지나 광법사뜰안에 들어서니 좌우량쪽에 동승당, 서승당이라고 불리우는 중들이 살던 집이 마주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8각5층탑이 서있었다.

우리는 높은 조각예술적 기교를 훌륭히 보여주는 석탑을 눈여겨보고나서 광법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으로 들어섰다.

밖에서 볼 때에는 배부른 밝은 기둥에 날아갈듯 한 한두겹의 합각식지붕이 이어져 2층으로 보였으나 정작 들어와보니 단층으로 되여있었다.

대웅전은 문양이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놓은듯 한 금단청을 하여 볼수록 화려하고 웅장한감을 주고있었다.

우리는 강사에게서 광법사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광법사는 고구려 광개토왕시기인 392년경에 건립한 불교사찰이라고 한다.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유구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의 하나였던 광법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그러던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법사를 원상복구하도록 친히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법사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심으로써 자기의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였다고 한다.

강사의 해설을 듣느라니 가치있는 건축문화유산으로서의 옛 모습을 되찾은 광법사가 더욱 뜨겁게 새겨졌다.

본사기자 김 철

탁구공 한알의 무게는 매우 작다.

하지만 이 자그마한 탁구공으로 지구에 커다란 충격을 준 선수가 있다.

그가 바로 1970년대에 세계체육계를 놀래우며 공화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인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박영순선수이다.

어릴적부터 탁구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학교탁구소조에서 기술을 배워온 그는 12살에 전국중학교부문 탁구경기대회(당시)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후 4.25체육단 탁구선수로 되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켰다.

1975년 제33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준준결승경기에서 마지막 5회전 점수가 15:19로 4점이나 떨어졌을 때이다.

그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대담하게 공격을 들이대여 18:20으로 점수차이를 줄였으며 마지막 한알을 놓고 모두가 가슴을 조일 때에도 련속 강타를 안겨 23:21로 경기를 역전시킴으로써 세계적인 탁구신화를 창조했다.

박영순선수는 1977년 제3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또다시 출전하여 세계선수권을 보유함으로써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그는 선수로 생활하는 기간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15개를 비롯하여 37개의 메달을 쟁취하여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였으며 나라의 체육선수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영순은 오늘도 세계탁구녀왕, 체육영웅으로 사람들의 추억속에 소중히 남아있다.

본사기자

❖❖❖ 풍부한 지식을 주는 식물박물관 ❖❖❖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 중앙식물원지구에 식물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는 남양삼나무, 대추야자, 바나나, 인디아긴잎소나무, 고무나무, 소철, 이라크대추나무를 비롯한 키나무들과 꽃계수나무, 선인장류 등 150여종의 열대 및 아열대, 온대식물들 천수백여그루가 자라고있다.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은 갖가지 나무들, 화초들과 함께 해당 식물의 이름과 수명, 학명, 분포지역 등을 해설한 설명판을 보면서 세계의 다양한 식물상에 대한 지식을 넓혀간다.

식물박물관에는 과학기술보급실도 있는데 여기에는 식물계의 진화발전력사와 조선의 식물상에 대한 자료들이 사진 및 표본자료, 전시품들과 함께 전시되여있다.

진렬장에는 개천시 무진대일대에서 채집한 고생대 뻬름시기의 식물화석, 길주군 일신리일대에서 채집한 신생대 제3기시기의 밤나무속 식물화석 등 수십점의 식물화석들이 진렬되여있다.

전시실에는 지질시대에 따르는 식물의 진화단계와 식물의 일반적구조 그리고 조선의 식물분포도와 종구성, 특산식물과 식물천연기념물들, 주요보호구와 자연공원, 유용식물의 보호와 리용에 관련한 사진 및 자료, 식물표본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국가망과 련결된 보급실의 콤퓨터를 리용하면 식물에 대한 더욱 깊이있는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다.

식물박물관은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는 보급기지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황 금 숙

속담과 뜻

❖ 젊어 (서) 고생은 금 주고도 못 산다.

젊어서 어려운 일을 하며 난관을 극복하는 단련이 매우 귀중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나이가 예순되도록 셈이 든다.

사람은 늙어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해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아이들은 많고 도래떡은 적다.

써야 할 대상은 많은데 물건은 적은 경우에 이르는 말.

겨울철 배움의 세계

겨울철에 사람들은 같은 기온조건에서도 바람이 불면 더 추운감을 느끼군 한다.

인체의 피부겉면에는 항시적으로 피부온도에 가까운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여 보온효과를 나타내는데 겨울에는 주변의 찬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열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기온이 떨어져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바람이 불면 피부근방의 얇은 더운 공기층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주위의 찬공기를 직접 느끼게 되며 열손실이 커지게 된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열손실은 더욱 커지며 사람들은 더 심한 추위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주위환경의 영향속에서 인체가 느끼는 기온이 체감온도이다.

실례로 맑게 개인 날 대기온도가 -9℃일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이 실지 느끼는 온도는 -7.3℃정도이고 바람속도가 3㎧이면 -14.2℃정도이며 8㎧의 속도로 바람이 불면 -18.6℃정도이다.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면 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를 막자면 기온과 함께 바람속도 등 대기상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본사기자

재미있는 프로그람들을 개발

❖ 삼흥경제정보기술사에서 ❖

삼흥경제정보기술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람들이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추이, 사람들의 기호와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 리용하고있다.

특히 다국어대사전프로그람 《새 세기》와 《나의 길동무》(화면반주음악편)는 삼흥경제정보기술사를 대표하는 주요 프로그람제품들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다국어대사전프로그람 《새 세기》는 6개의 어종에 10여가지의 사전과 의학사전, 약물사전도 포함하고있어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물론 가정주부들속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 프로그람들은 화상을 통한 문자인식기능과 음성인식기능, 손글입력기능의 정확도가 높고 검색방법이 다양하며 외국어단어 및 문장발성기능도 가지고있어 리용자들로부터 사용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나의 길동무》(화면반주음악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고 한다.

이 프로그람은 지능형손전화기와 판형콤퓨터를 리용하여 화면반주음악을 전문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프로그람이다.

또한 전문화면반주음악기재들을 대신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어디에서나 화면반주음악을 마음껏 열람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는 이 프로그람들의 개발자들은 20대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갈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람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감기를 예방하려면

감기는 비루스에 의하여 생기는 상기도감염증이다.

돌림감기를 비롯하여 감기를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편도염, 기관지염, 폐염을 비롯한 만병의 시초로 될수 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달리기와 걷기, 체조 등 체육을 통한 몸단련에 선차적관심을 돌려 몸의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매일 10%의 소금물로 함수를 하거나 마늘을 짓찧어 그 냄새를 코로 흡입한다.

저녁에 찬물로 2분정도 발에 열이 날 정도로 비비면서 씻거나 족삼리, 대추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것은 감기의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감기에 체기가 겹쳤을 때에는 생무우를 채칼로 쳐서 밥사발에 절반정도 되게 다져넣고 꿀을 천천히 부어 무우가 잠기게 한 다음 뚜껑을 덮고 깨끗한 보자기로 싸서 더운 곳에서 하루밤 지나면 무우즙꿀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한두숟가락씩 여러번에 나누어 먹으면 좋다.

소화장애가 겹친 어린이감기에 좋은 방법이다.

고려의학적인 치료로서는 몸을 덥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원칙에서 패독산, 향소산 등을 쓴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평양온반

평양온반은 흰쌀밥에 닭고기, 록두, 버섯 등으로 만든 음식으로서 영양효과가 아주 높다.

꾸미로 쓰는 닭고기는 간기능을 좋게 하고 조혈작용과 항펠라그라성작용을 한다.

또한 록두는 부종, 각기, 중독, 당뇨병, 염증을 치료하고 동맥경화를 막으며 버섯은 혈청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흰쌀 750g일 때 록두지짐 200g, 닭고기 500g, 닭알 1알, 참나무버섯 150g, 느타리버섯 100g, 깨소금 10g, 간장 20g, 양념간장 40g, 참기름 10g, 파 30g, 후추가루 0.5g, 실고추 1g을 준비한다.

닭고기는 삶아 찢어서 깨소금, 간장, 파, 후추가루로 무치고 국물은 깨소금, 간장, 후추가루로 양념한다.

참나무버섯과 느타리버섯은 데쳐 닭고기와 같은 굵기로 썰어 볶고 닭알은 지짐을 지져 가늘게 썬다.

흰쌀로는 되게 밥을 지어 그릇에 담고 록두지짐과 닭고기, 버섯들을 얹은 다음 국물을 붓고 실파, 실고추, 실닭알로 고명하여 양념간장과 같이 낸다.

본사기자

사화

돌탑에 깃든 넋 (1)

글 장 성 철, 그림 김 윤 일

정방산성의 성불사에서 마주 바라보느라면 거북형제봉 중턱의 아스라한 벼랑바위우에 우뚝 솟아있는 탑처럼 쌓아올린 돌무지 하나가 보인다.

잣송이만 하게 정히 다듬은 돌들을 돌기돌기 쌓아올린 류다른 돌탑…

흘러온 력사와 더불어 하나, 둘 놓여져 탑을 이룬 그 개개의 돌들마다에는 과연 어떤 사연들이 깃들어있는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돌들이 어찌하여 이렇듯 무심히 볼수 없는 탑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돌 하나를 들어 사연을 들어보련다.

임진(1592)년 어느날, 아무리 부지런한 아낙네라도 아직은 잠자리에 들어있을 이른 새벽녘이였다.

날이 밝으려는지 어느 먼 농가에서 첫닭이 홰를 치는 소리가 사람사는 마을과도 썩 떨어진 절령의 후미진 곳까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 소리에 잠을 깼는지 골짜기아래 서있는 늙은 소나무우듬지에서 밤새 한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다.

나무아지들의 솔잎들마다에 맺혀있던 무거운 이슬들이 아래로 후두둑 떨어지자 그밑에 기신없이 쓰러져있던 검은 형체가 《음—》 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채였다.

정방산성과도 어지간히 떨어진 인적드문 곳인 여기서 때아닌 이른새벽에 사람의 자취가 있다는건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지금 같은 왜란의 시기에…

거기서 또다시 자반뒤집기를 하는지 부시럭부시럭하더니 이어서 또 울리는 신음소리, 헛소리…

침침한 어둠과 쥐죽은듯 괴괴한 정적만이 휩싸인 이 적막산천에 기신없이 늘어져있는 사람은 바로 정방산일대에서 투석군으로 유명짜한 능지마을의 석칠복이였다.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들리기 시작했지만 석칠복은 비몽사몽간에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있었다.

을묘왜변때 고기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왜놈들에게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다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아버지가 나타나 호되게 꾸짖는가 하면 정방벌 대토호 류자림의 낯짝이 자꾸만 얼른거리기도 했다.

석칠복은 바로 지난밤 동선령에 둥지를 튼 왜놈군영에서 도망쳐온 몸이였다.

처음 오도모 요시아끼라고 불리우는 왜놈장수의 앞에 섰을 때까지도 석칠복은 자기가 무슨 정신에 오랑캐무리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전혀 몰랐었다.

분명 류자림의 열두고간에 쌓여있던 식량을 몇몇 작인들과 함께 옹근 이레밤이나 새워가며 진틀이고개근처에 감추어놓고 그의 집 사랑채에서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던 석칠복이였다.

그러다 재밤중에 류자림에게 불리워나가 낯모를 사나이들의 뒤를 경황없이 따랐던것인데 와보니 얼뜬한 놈 죽는 마당에 끌려가기 쉽다고 바로 왜놈군영이였던것이다.

그 순간부터 석칠복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듯 억이 막혀 제정신이 아니였다.

그는 왜놈장수가 살기찬 눈길로 노려보며 호통치는 소리도 류자림이 뱁에게 물린 개구리처럼 주접을 못 펴고 무엇이라 주어섬겨대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다. 그저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귀가 멍멍할뿐이였다.

얼마후 밖으로 나와 머리

를 싸쥐고 몸부림치는 그의 결으로 류자림이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석칠복은 류자림을 쏘아보았다.

《왜 이렇게 했소? 왜 나를 이런 곳에 끌고왔는가 말이요? 왜?》

석칠복이 따지고들자 류자림은 겁질린 눈길로 주변에서 맴도는 왜놈들을 힐끔 바라보며 목을 움츠렸다.

《떠들지 말게. 저놈들이 듣겠네. 어휴— 그러니 낸들 어찌겠나. 밤중에 저놈들이 갑자기 뛰여들어 저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집을 불사르고 온 가족을 도륙내겠다는데… 자네도 저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잘 알지 않나. 죽이는데는 이골이 난게 저 족속이야. 봉산고을에서만도 저놈들때문에 숱한 떼죽음을 당했어.》

류자림은 왜놈들쪽을 다시 한번 힐끔 바라보고나서 석칠복이 들으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하는 소리인지 알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였다.

《오지 않고 뻗쳐야 목없는 귀신이 될터인데 별수 있나?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나. … 목숨에는 여벌이 없다네.》

류자림은 석칠복이 여전히 부릅뜬 눈으로 쏘아보자 고개를 외로 틀며 또 중얼거렸다.

《어찌겠나. 더우면 물속에 뛰여들기마련이구 급할때 뒤를 가리지 못한다지 않나. …》

석칠복의 주먹은 저도 모르게 부르르 떨렸다.

《뭐, 더울 때 물속에 뛰여든다구? 그것두 말이라고 하우? 그래 어른은 춥다고 불속에도 뛰여들겠소? 에익!》

석칠복은 너무도 억이 막혀 더 말을 못하고 류자림을 뚫어지게 쏘아보기만 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놈에게 끌려 범의 아가리에 제발로 찾아들어왔는가? 아—)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노릇이였다.

사실 석칠복은 엊그제 벌써 정방산성에 들어갔어야 할 몸이였다. 나라에 변변한 군사가 없는탓에 나라지경을 썩은 려염집울바자 밀어제끼듯 뛰여넘어서 파죽지세로 밀려들던 왜놈들은 평양성에서 발목을 잡히우게 되였으며 하여 여기 동선령에도 만여놈씩이나 둥지를 틀게 되였다.

유머

땅과 바다

교원: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학생: 땅과 바다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원: 그럼 왜 지구에는 땅과 바다가 생겼을가요?

학생: 땅에서는 사람이 살고 바다에서는 고기가 살라고 생겼습니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